제7강 갈래, 차이와 반복, 물음

(1교시)

◆갈래 그리고 차이와 반복의 관계
※학습목표: 들뢰즈 존재론과 변증법, 그리고 그 한계를 살핀다.

▲들뢰즈와 흐름
-들뢰즈의 흐름은 갈래다. 각각의 갈래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규정indeterminate적이다. 그런데 그 갈래와 갈래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규정determinate적이게 된다. 그래서 들뢰즈에게 있어서 무한한 누층적인 생성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성립한다.
-병아리가 끄덕거리는 것은 actual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안에는 무수한 virtual한 것이 작용한다.

▲들뢰즈 ontology의 한계
-개체 이하의 것들은 개체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나 개체는 개체 이상을 위하지 않는다. 들뢰즈는 누층적이라고 할 때, 이 점을 놓치고 있다.
-개체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누층적 위계는 자연적인 것이고, 필연적이고, 조화롭다. 그러나 개체와 개체 위에 있는 보편자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통철학자들처럼 개체를 개체 위의 것으로 설명하는 것만큼, 개체를 개체 이하의 것으로 설명하는 들뢰즈의 ontology도 완전하지 않다.

▲외적반복과 내적 반복
「*이미 원천적으로 '틱' 소리들의 수축에 의해 형성된 일반성은 '틱-탁'이라는 좀더 복잡한 소리들의 반복 안에서 특수한 것들로 재분배된다. 하지만 이 복잡한 소리들도 역시 수동적 종합들의 계열 안에서 수축된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물질적이고 헐벗은 반복, 이른바 같음의 반복은 외피이거나 겉봉투이다. 그리고 사실 그 안에는 어떤 차이에 좀더 복잡한 내적 반복들을 감싸고 있다.*」
-물질적이고 헐벗은 반복은 차이를 낳지 않는다. 반면 내적 반복에서는 반복이 내적 존재들로 수축하면서 질적인 차이를 생성한다.

▲차이와 반복의 관계
「*차이는 <u>두 반복</u> 사이에 있다. 그러나 역으로 반복이 또한 두 차이 사이에 있으며*」
-두 반복은 헐벗은 반복과 내적이며 풍요로운 반복이다.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내적 반복과 외적 반복의 구분은 차이를 낳느냐 낳지 못 하느냐에 있다. 그래서 역으로 차이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과 있는 것 사이에 반복이 있다. 또한 그래서 차이와 반복이 뫼비우스띠처럼 얽혀있다.

▲변증법적 전개와 반복
「*우리로 하여금 차이의 한 질서로부터 다른 한 질서로 이동하게 만든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브리엘 타르드가 지적했던 것처럼, 변증법적 전개는 반복이다.*

www.artnstudy.com

*이 반복은 어떤 **일반적** 차이들의 상태로부터 **독특한** 차이로 옮겨가는 이행이며, 외부적 차이들로부터 내부적 차이로 향하는 이행이다. 반복은 차이의 분화소이다.」*

-여기서 '일반적'과 '독특한'은 들뢰즈가 평소에 쓰는 general과 singular다.

-들뢰즈가 비판하는 일반적인 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을 점점 크게 묶어가는 것이다. 이를 헤겔적인 사고, 헤겔적 변증법으로 본다. 거기에 비해 singular는 어떤 사건이 일관적으로 벌어지다가 달라지는 지점이다. 즉 타르드, 들뢰즈의 변증법은 regular하고 ordinary한 흐름 속에서 singular한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다.

-외부적 차이들로부터 어떤 요소나 경우들이 서로 내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부로 수축한 차이로 이행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Jean-Gabriel de Tarde(1843.3.12~1904.5.13) 프랑스의 사회학자, 범죄학자

www.artnstudy.com

(2교시)

◆능동적 자아와 수동적 자아, 물음.
※학습목표: 능동적 자아와 수동적 자아가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 알아본다.

▲피곤
「*피곤은 영혼이 자신이 응시하는 것을 더 이상 수축할 수 없는 국면을 표시한다. 그것은 응시와 수축이 와해되는 지점이다. 우리는 응시만큼이나 많은 피곤들로 이루어져 있다.*」

▲능동적 자아와 수동적 자아
「*욕구 그 자체는 그것을 이미 능동성과 관련시키는 어떤 부정적 구조들로부터 출발할 때는 매우 불완전하게 이해된다.*」
-능동적 자아의 욕구와 수동적 자아의 욕구는 다르다. 수동적 자아의 욕구는 수축을 하면서 피곤과 만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능동적 자아의 기대에 해당한다. 또한 이때의 욕구는 인간이 판단하기 이전에 몸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능동적 자아의 욕구는 명백한 대상object를 전제한다. 그리고 대상과 자아 사이의 관계는 결핍이다.

▲응시와 물음
「*만일 능동성이 성립하는 응시의 토양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행해지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능동성을 끌어들이는 것도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응시한다는 것, 그것은 묻는다는 것이다.* ***대답****을 '훔쳐낸다'는 것, 바로 거기에 물음의 고유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물음****은 고집이나 완고함, 그리고 욕구에 상응하는 권태와 피곤을 동시에 현시한다.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응시하는 영혼이 반복에게 제기하고 반복으로부터 대답을 훔쳐내는 어떤 물음이다. 응시들은 어떤 물음들이다. 응시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시들을 채우는 수축들은 모두 어떤 유한한 긍정들이다.*」
-대답은 주체의 결핍이 매워줄 것이다.
-물음은 능동적 자아에서의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동적 자아의 차원에서 기울어져 가는 것이다.
-차이는 반복에 거주한다. 차이는 항상 우리가 응시하면서 반복으로부터 어떤 차이를 이끌어 올 것인가 묻게 된다.
-부정은 현재의 주체와 그 주체에 결여를 가져오는 거리를 전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동적 자아는 능동 이전에 이미 수축한다.

▲욕구와 능동적 종합
「*이 긍정들이 발생할 때 현재들은 시간의 수동적 종합안에서 영속하는 현재로부터 태어난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욕구를 능동적 종합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려는 우리의 성급한 태도 때문이다.*」
-욕구를 능동적 종합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부정과 결여를 관계로 보는 것이다.
-헤겔은 현실차원에서 존재하는 결핍, 불연속성, 다원성을 극복하려 한다. 헤겔에게 객체차

www.artnstudy.com

원은 불연속과 욕망차원이다. 이를 통합하려면 국가 이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들뢰즈가 볼 때, 특수한 것은 일반적 차원으로 엮어 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거부하려는 것이 들뢰즈의 사고다.

▲문제제기와 물음

*「만일 우리가 능동적 종합들을 그것들이 가정하는 이 바탕 위에 다시 위치시킨다면, 능동성은 차라리 물음들과 함께 **문제제기**의 장들이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동의 영역 전체, 인공적 기호와 자연적 기호들의 물림과 얽힘, 본능과 학습의 상호 간섭, 기억과 지성의 상호 개입 등은 어떻게 응시의 물음들이 능동적 문제제기의 장들 안에서 전개되는지를 보여준다.」*

-problématique. 인간이 제기하기 전에 우리 삶 속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경험으로 확장할 수 없다. 능동적 자아는 단지 문제를 발견하는 식으로만 얘기할 수 있다. 문제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능동적 차원과 수동적 차원이 얽히면서 아래에서 물어지는 물음들과 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제기가 관계를 맺는, 상호 개입한다.

▲습관에의 의존

*「시간의 첫 번째 종합에는 살아 있는 현재(삶의 위급성) 안에서 나타나는 바 그대로의 첫 번째 물음-문제 복합체가 상응한다. 이 살아있는 현재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모든 유기체적이고 심리적인 삶은 습관에 의존한다. 콩디야크를 따라 우리는 습관을 다른 모든 심리적 현상들이 파생되는 정초 지점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현상들이 응시들에 의존하거나 그 자체로 어떤 응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습관들-이 수축, 응시, 지망, 자만, 만족, 이 가변적 현재들-은 수동적 종합들의 기저영역을 형성한다.」*

-수축, 응시, 지망, 욕구, 자만, 만족, 피곤 등 모두가 습관이다.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들, 변화들을 수축하고 그 수축을 통해서 반복을 한다. 그런데 이 반복들은 차이를 가미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습관들이 이루어진다.

▲자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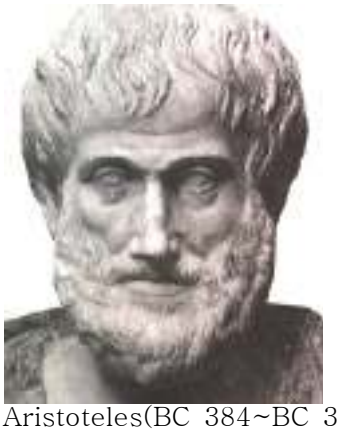
*「수동적 종합들의 세계는 규정되어야 할 어떤 조건들 안에서 자아의 체계를 구성한다. 하지만 그것은 분열된 자아의 체계이다. 어디선가 은밀한 응시가 성립하는 순간 거기에는 자아가 있다. 어디선가 수축하는 기계가 기능하고 반복에서 어떤 차이를 훔쳐내는 국면에 도달하는 순간 거기에는 자아가 있다. 자아는 양태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떤 양태변화이고, 이때 이 용어는 정확히 훔쳐낸다는 것을 지칭한다.」*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양태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변하는 방식이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아 자체가 양태변화다. 그래서 자아는 물질적 반복들을 수축하고, 차이를 이끌어내는 과정 전체다.

*참고 자료

www.artnstudy.com


Aristoteles(BC 384~BC 32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존재의 소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존재가 형성되거나 수동적 자아가 있는 것은 바로* ***소유****를 통해서다.*」

-소유는 즉자적 반복으로부터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갖게 되는 '차이'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있고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져가는 것이 소유다.

www.artnstudy.com